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무례함, 진로정체감이 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송정희¹, 김혜진^{2*}

¹안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²경북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Incivility, Career identity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ung-Hee Song¹, Hye-Jin Kim^{2*}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Ansan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bu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임상실습에서 경험한 무례함, 진로정체감, 전문직관을 확인하고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임상실습의 경험이 있는 320명이며, 자료는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SPSS Win 18.0을 사용하여 t-검정, ANOVA, Pearson's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평균 3.90±.51점(6점 만점), 임상실습시 경험한 무례함은 평균 2.36±.84(5점 만점), 진로정체감은 4점 만점 중 2.64±.51점, 전문직관은 3.63±.46(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은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과 양의 상관관계, 임상실습시 경험한 무례함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무례함, 진로정체감은 전문직관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6.3%였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의 변화와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무례함의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전략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자기효능감, 무례함, 진로정체감, 전문직관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incivility, career identity and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were 320 junior and senior nursing students from four colleges in Gyeonggi-do.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average self-efficacy was 3.90 points, incivility was 2.36 points, career identity was 2.64 point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was 3.63points.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was positively correlated self-efficacy, career identity, but nursing professionalism was negatively correlated incivility. The predictors on nursing professionalism were self-efficacy, incivility, career identity and rudeness. These variables have explanatory power of 16.3% on nursing professionalism. Therefore, specific strategies are needed to reduce the rudeness experienced in clinical practice and change in the curriculum to increase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Self-efficacy, Incivility, Career identity, Nursing professionalism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은 미래의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위해 간호학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 관련 교양 및 전공지식과 임

상 실무능력을 학습하게 된다. 간호학 교육과정에서 임상실습은 교내에서 학습했던 간호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임상 실습현장에서 임상 간호실무를 직접 관찰, 수행하고 적용하는 과정으로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이 이

*Corresponding Author : Hye-Jin Kim(jinjin051023@naver.com)

수해야 할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론수업과 임상실습을 병행해야 하는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에 대한 부담이 높고[1],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론교육이나 실습교육과는 달리 임상실습현장에서의 실습교육은 낮은 환경에의 부적응, 대인관계 스트레스, 무례함,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간호대학생에게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이는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키거나 미래의 간호사로서의 자신의 역량이나 진로를 의심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견해와 전문직업인으로서 간호사의 활동이나 직분에 대한 견해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신념, 관련 및 인상의 총합을 말한다[2]. 간호전문직관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전반적인 간호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간호사가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을 가지고 있으면 효율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간호사 개인의 직업적 성공을 위해서나 간호직의 발전을 위해서나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은 필요하다[3]. 이를 위해서는 간호학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에서 다양하고 긍정적인 경험 그리고 자신감, 자존감 등 간호대학생 개인의 특성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간호학에 대한 전공만족도나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더 높게 나타난 바 있다[4-7]. 간호전문직관은 간호관련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간호대학생 때부터 형성하기 시작하며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은 간호사 개인의 만족감 증진뿐 아니라 간호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자기효능감이란 목표를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지각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 및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조절하고 그것에 필요한 행동을 선택하고 지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정서적인 요인이다[8].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학습할 경우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학습효과 특히 학생들이 직접 활동하는 수행에 높은 상관성이 있으며, 특히,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간호수기능력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9]. 즉,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임상실무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간호대학생은 매번 새로운 임상실습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임상실습교육에의 부적응, 위축, 스트레스,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인해 자기효능감이 쉽게 낮아질 수 있으며, 낮아진 자기효능감은 임상실습교육과정에서나 졸업 후 간호사로 일할 때 다양한 갈등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10]. 또한 간호대학생이 미래의 전문직 간호사로서 필요한 간호실무역량을 습득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례함(incivility)은 태도나 말에 예의가 없음을 의미한다[11]. 작업장에서의 무례함은 대상을 해치려는 의도가 모호하고 낮은 강도의 일탈행동이며, 특징적으로 무례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행동을 말한다[12].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험하는 무례함은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사에게 감정노동이나 정신적 스트레스의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시 의료인, 환자와 보호자, 기관관계자 등의 무시나 무관심, 불쾌한 표정, 생각 없는 행동, 비꼬는 행동, 귀찮아하는 표정 등과 같은 무례한 행동을 경험하게 되는데[13], 이러한 무례함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실습만족도, 나아가 자신의 진로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간호사가 경험하는 환자와 환자가족 무례함, 의사 무례함, 상사 간호사 무례함이 간호사의 소진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4],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무례함은 진로정체감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15]. 진로정체감은 개인이 가진 직업목표나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확한 진로정체감을 가질수록 그 상황에 맞는 진로선택을 할 수 있다[16]. 예비전문인으로서의 간호대학생은 입학 전부터 간호사로의 진로를 결정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혼란이 없을 것 같이 생각되지만 실상 매 학년을 거치면서 막대한 양의 새로운 간호지식습득의 어려움, 임상실습에서의 스트레스 등으로 간호사로서의 진로에 대한 혼돈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신규간호사들의 높은 이직률과도 연관되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간호전문직관과 관련하여 임상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교육환경, 셀프리더십, 간호근무환경, 조직 몰입, 간호사 이미지 등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17,18]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임상실습시 경험하는 무례함과 같은 구체적 경험과의 관

계를 다룬 연구는 미비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인 자존감, 자기효능감과 관계의 다룬 연구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간호사의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 확립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미래의 전문직 간호사로서 간호학생은 대학교육과정에서 긍정적인 전문직관의 확립이 필요하다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임상실습시 경험하는 무례함, 진로정체감 및 전문직관의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간호사로서의 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실습교육 프로그램과 임상실습교육환경의 개선에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이 자기효능감, 임상실습시 경험하는 무례함, 진로정체감이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임상실습시 경험하는 무례함, 진로정체감 및 전문직관을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임상실습시 경험하는 무례함, 진로정체감 및 전문직관의 관계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자기효능감, 임상실습시 경험하는 무례함, 진로정체감이 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정보수집

연구대상자는 경기도 N시, B시, A시에 위치한 4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 4학년으로 임상실습의 경험이 있으며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를 허락한 학생이다. 대상자수는 G*power 3.1.9.2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유의수준 $\alpha=.05$, 검정력 power=.95, 예측변수=4개, 효과크기 $f^2=.05$ 를 투입했을 때 산출된 표본수는 총 262명이다. G-power에서 산출된 표본수는 흔히 최소 필요 표본수이므로 설문지 누락을 고려하여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

으며 회수되지 않은 14부와 불성실하게 응답한 16부를 제외하여 320명(91.4%)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Bandura의 효능 이론을 근거로 차정은[21]이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자신감(10문항), 자기조절 효능감(13문항), 과제난이도 선호(7문항)의 3가지 하위영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6점까지의 6점 척도로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차정은[21]의 연구에서 개발 당시 세부항목 신뢰도는 자신감 Cronbach $\alpha =.84$, 자기조절 효능감 Cronbach $\alpha =.85$, 과제난이도 선호 Cronbach $\alpha =.81$ 이었고, 최선화[20]의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 Cronbach $\alpha =.90$,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90$ 이었다.

2.3.2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시 경험한 무례함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무례함은 Maureen Anthony[21]가 개발한 UBCNE(Unicivil Behavior in Clinical Nursing Educaton) 20문항을 바탕으로 조수옥, 오진아[22]가 개발한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무례함 한국어판 측정도구(K-UBCNE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배타 5문항, 멸시 5문항, 거절 3문항의 3영역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경험하지 않음의 1점에서 매우 자주 경험함의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무례함의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조수옥, 오진아[2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alpha =.84$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93$ 이었다.

2.3.3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은 Holland, Gottfredson과 Power[16]가 개발한 진로상황검사(MVS, My Vocational Situation)의 하위척도인 정체감 척도 18문항을 김봉환[23]이 한국 상황에 맞게 번안하고, 권윤희[24]가 한국 간호대학생에 맞게 14문항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4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다의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4점까지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

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김봉환[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9, 권윤희[2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8이었다.

2.3.4 전문직관

전문직관은 윤은자, 권영미, 안옥희[2]가 개발한 간호 전문직관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전문직 자아개념 9문항, 사회적 인식 8문항, 간호의 전문성 5문항, 간호실무 역할 4문항, 간호의 독자성 3문항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는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윤은자, 권영미, 안옥희[2]의 연구에서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 α =.92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90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A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IRB No. AN01-201901-HR-001-01) 2019년 2월 15일~ 4월 8일까지 구조화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수집하였다.

각 대학 간호학과 교수에게 자료수집에 대한 허락을 얻은 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수집된 자료의 엄격한 관리와 보관, 익명과 비밀보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였고, 연구의 참여하는 것은 자발적이며 참여하지 않을 시 전혀 불이익이 없으며 언제든지 설문에 참여하지 않기로 할 수 있고 중단하기 원하면 언제든지 중간에 그만둘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이에 관해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다. 그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수집에는 10~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각 변인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측정 변인들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다. 측정 변인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2.95±3.50세였으며, 대상자 중 101명(31.6%)이 간호학과 입학 동기에 대한 질문에 취업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32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Age(yr)	20 ~ 22	200(62.5)
	23≤	120(37.5)
	M±SD	22.95±3.50
Gender	Male	21(6.6)
	Female	299(93.4)
Entering Motivation	Suitable to aptitude & interest	87(27.2)
	Employment security	101(31.6)
	Worthy occupation	58(18.1)
	Considering high school record	16(5.0)
	Recommendation of around	58(18.1)
Career	Yes	221(69.1)
	office worker	38(11.9)
	long-term part time	95(29.7)
	short-term part time	87(27.2)
	No	97(30.3)
Clinical practice period	<10 weeks	124(38.8)
	10 ~ 20 weeks	75(23.4)
	20 weeks<	101(31.6)
	Non response	20(6.3)
	M±SD	16.85±8.10
Clinical practice ageny (Multiple responses)	University hospital	296(92.5)
	General hospital	178(55.9)
	Special hospital	139(43.4)
	Community healthcare center	163(50.9)
	etc.	29(9.1)
Difficult person in practice	Nurses	198(61.9)
	Patient, guardian	47(14.7)
	Practical colleague	34(10.6)
	clinical practice lecturer	13(4.1)
	Other professions	10(3.1)
	Others	15(4.7)
	Non response	3(0.9)
Satisfaction on university life		3.42±.74
Satisfaction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3.76±.63

대상자들의 평균 임상실습 기간은 16.85±8.10개월이었으며 대학병원에서 실습을 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 296명(92.5%)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임상실습시 어려웠던 인간관계의 질문에 임상 간호사들과의 관계가 어렵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198(6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2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임상실습시 경험하는 무례함, 진로정체감, 전문직관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Table 2와 같다. 6점 만점 중 3.90±.51점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조절 효능감이 하부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4.40±.56점). 임상실습시 경험하는 무례함은 5점 만점 중 2.36±.84로 나타났으며 하부영역 중 배타영역이 2.73±.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진로정체감은 4점 만점 중 2.64±.51점으로 나타났고 전문직관은 3.63±.46으로 하부영역 중 간호의 전문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3 변수들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임상실습시 경험하는 무례함, 진로정체감, 전문직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자기효능감은 진로정체감, 전문직관과 양의 상관관계를, 무례함은 전문직관, 진로정체감과 음의 상관관계를, 진로정체감은 전문직관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2. Self-efficacy, Incivility, Career identity, Nursing professionalism (N=320)

Variables	M±SD
Self-efficacy	3.90±.51
Self-confidence	3.62±.77
Self-regulatory efficacy	4.40±.56
Task difficulty preference	3.37±.70
Incivility	2.36±.84
exclusion	2.73±.93
contempt	2.24±.97
refusal	1.94±.87
Career identity	2.64±.51
Nursing professionalism	3.63±.46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3.58±.57
Social awareness	3.51±.58
Professionalism of nursing	3.93±.50
The roles of nursing service	3.84±.55
originality of nursing	3.33±.77

Table 3. Correlation among Self-Efficacy, Incivility, Career Identity, Nursing professionalism

	Incivility	Career Identity	Nursing professionalism
Self-Efficacy	.000	.476**	.170*
Incivility		-.150*	-.304**
Career Identity			.319**

*p<.05, **p<.001

3.4 대상자의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임상실습시 경험한 무례함, 진로정체감 그리고 자기효능감을 분석에 이용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독립변수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관계수가 0.8미만으로 나타나 모든 요인을 이용하여 입력(Enter)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차한계값(Tolerance)와 VIF 값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값은 .751~.941, VIF 값은 1.030~1.332로 공차한계값이 0.1이하이거나 VIF값이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Durbin-Watson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1.851로 나타나 자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21.722, p=.000), 모형의 설명력(Adj R²)은 0.163으로 나타났다. 전문직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진로정체감(0.257)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자기효능감(0.048)이었고 임상실습시 경험한 무례함은 부정적인 영향(-0.266)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Factors Influencing on Nursing Professionalism

Model	B	S.E.	β	t	Adj R ²	F
(Constant)	3.207	0.197		16.249	.163	21.722*
Incivility	-0.145	0.028	-0.266	-5.110		
Self-Efficacy	0.042	0.052	0.048	.817		
Career Identity	0.228	0.052	0.257	4.345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임상실습시 경험한 무례함, 진로정체감과 전문직관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교육 프로그램과 임상실습교육환경의 개선에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점수는 6점 만점에 3.90 ± 51 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일반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3.76점[25]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3.24점으로 나타나는 데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측정 한 연구[26]의 3.24 ± 47 점, [27]의 3.28점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자기효능감은 간호대학생이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신념으로[28], 임상실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적극적으로 실습에 참여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29]. 자기효능감은 실제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과 정서적 상태 등으로 설명되며 이중 실제경험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8],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상황을 구현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확대하고 실제 사례를 반영한 다양한 임상 시나리오 개발 및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적용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시 경험한 무례함 점수는 5점 만점 중 2.36 ± 84 점으로 [22,30,31]의 연구결과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32,3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무례함의 정도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평균 연령이 낮아 선행연구보다 무례함의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실습시 다수의 간호대학생이 무례함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중간 이하의 무례함 정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선배나 연장자의 언행에 대해 허용적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나라 사회관계[34]의 특성상 무시나 무관심, 불쾌한 표정 등의 경험을 무례함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무례함의 정도가 낮더라도 진로정체감과 전문직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무례함을 느끼는 상황 및 표현 등의 세부적인 분석과 의사소통 훈련을 통해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진로정체감은 2.64 ± 51 점으로 중간값보다 높게 나

타났고 이는 [35,36]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나왔다.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안정감 있게 진로와 관련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직업에 대한 적응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37].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38]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면 진로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고, 간호직에 대한 확신을 갖을 뿐만 아니라 간호사로서의 직업적 목표나 간호직에 대한 흥미를 느껴 예비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직관은 3.63 ± 46 점으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7,27,39]. 본 연구에서 전문직관은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과 양의 상관관계, 임상실습시 경험한 무례함과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기효능감과 전문직관의 관계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40]에서도 같은 결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간호대학생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이해와 견해가 긍정적이며 스스로 해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간호전문직관은 향상될 수 있다.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진로정체감, 무례함, 자기효능감으로 이 요인들로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을 16.3% 설명할 수 있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진로정체감이었고, 임상실습시 경험한 무례함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전문직관을 가지게 되면 직무만족도가 높고, 간호업무 수행능력에 있어서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조직몰입도 높다고 하였다[41].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간호행위를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들의 전문직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진로정체감 및 자기효능감을 상승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자기효능감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이므로 간호대학과정 중에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은 진로정체감과 전문직관을 확고히 하고 향상시켜 간호사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스트레스 상황에 잘 대처하며 자신의 직업에 대해 만족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간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임상실습시 경험하는 무례함은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무례함의 상황에 대처하고자 하는 행동은 소진을 일으키며[32], 이는 진로정체감, 전문직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게 한

다. 무례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무례함은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상대적 감정으로 이를 없애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무례함을 느끼게 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임상실습 전후 실습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자들과 현장지도자들의 임상실습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협의, 임상실습현장의 긍정적 조직문화 조성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간호전문직관과 관련하여 임상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선행연구가 있었으나[17,18], 임상실습시 경험하는 무례함과 같은 구체적 경험이나 개인적 특성인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미비하여 이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과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전문직관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진로정체감으로 나타났고,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무례함은 전문직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의 변화와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무례함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해 입학 때부터 학문적, 실무적 간호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안내하고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견학 및 특강에 참여하여 자신의 간호철학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임상실습시 무례함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수용하고 인내하도록 하는 수동적인 대처가 아닌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간호대학생들의 자기성찰과 자기주장, 의사소통기술의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 현장에서 의료인간에 존중하고 배려하는 긍정적인 문화를 조성해야하며, 병원내에서 느낄수 있는 무례함의 상황과 정도에 대해 공유하고 보고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4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시키기에 제한점이 있어 다양한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연구와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전문직관에 임상실습시 경험한 무례함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에 세부적인 해결방법 마련을 위해 추후 무례함의 구체적인 사례 및 상황별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D. Z. Fang, C. B. Young, S. Golshan, C. Moutier & S. Zisook. (2012). Burnout in premedical undergraduate students. *Academic Psychiatry, 36(1)*, 11-16.
- [2] E. J. Yeun, Y. M. Kwon & O. H. Ahn. (2005).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6)*, 1091-1100.
- [3] K. S. Jang(2017). *Ethic & profession of nursing*. Seoul : Hyunmoonsa.
- [4] E. J. Yeun & Y. M. Kwon. (2007).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3(3)*, 285-292.
- [5] H. H. Cho & J. M. Kang. (2016). A Study on Core Elemen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that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Perceive. *Journal of holistic Nursing Science, 9*, 67-77.
- [6] Y. S. Ham, H. S. Kim, I. S. Cho & J. Y. Lim. (2011). Affect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3)*, 536-544.
DOI : 10.5977/JKASNE.2011.17.3.536
- [7] B. Y. Huh & M. R. Kim. (2018). Relations Between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Identity Among Nursing Students in Course Applying Problem-Based Learning.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9(6)*, 29-42.
DOI : 10.5977/JKASNE.2011.17.3.536
- [8] A. Bandur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ce. *Psychological Review, 82(2)*, 191-215.
- [9] M. S. Yoo, Y. J. Son, I. Y. Yoo & S. K. Hong. (2006).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Clinical Skil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3(3)*, 343-350.
- [10] N. Y. Yang & S. Y. Moon. (2011).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7(2)*, 216-225.
DOI : 10.11111/jkana.2011.17.2.216
- [11] Naver dictionary. (2019). <https://ko.dict.naver.com/>

- [12] L. M. Anderson & C. M. Pearson. (1999). Tit for that the spiraling effect of incivility in the workplace.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4(3), 452-471.
- [13] S. L. Kim & J. E. Lee. (2005).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1), 98-106.
- [14] S. Y. Kim, J. K. Kim & K. O. Park. (2013). Path Analysis for Workplace Incivility, Empowerment, Burnou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9(5), 555-564.
DOI : 10.11111/jkana.2013.19.5.555
- [15] J. Y. Lee, M. S. Kim, S. J. Kim, S. G. Lee, S. J. Yang & S. A. Park. (2018). Effects of Hospital Violence and Nurses Incivility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Training. *Culture and Convergence*, 40(5), 713-738.
- [16] J. J. Holland, D. C. Gottfredson & P. G. Power. (1980).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6), 1191-1200.
- [17] C. H. Kim & J. Y. Kim. (2019).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Learning Environment, Self-leadership, and Clinical Practice Belonging on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5(1), 5-16.
DOI : 10.5977/jkasne.2019.25.1.5
- [18] H. S. Joo & Y. H. Jun. (2018). Influence of Nurses' Work Environ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in Long 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4(4), 265-275.
DOI : 10.11111/jkana.2018.24.4.265
- [19] J. E. Cha. (1997). *A study for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 development*. A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20] S. H. Choi. (2008). *Relationship of Self-Efficacy to Classroom Management Efficiency in Secondary Teachers*. A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amcheok.
- [21] M. Anthony, J. Yastik, D. A. MacDonald & K. A. Marshall. (201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ool to measure incivility in clinical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30(1), 48-55.
DOI : 10.1016/j.profnurs.2012.12.011.
- [22] S. O. Jo & J. A. Oh. (2016).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a Tool to Measure Uncivil Behavior in Clinical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4), 637-648.
DOI : 10.5977/jkasne.2016.22.4.537
- [23] B. W. Kim & K. H. Kim. (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9(1), 311-333.
- [24] Y. H. Kwon. (2002). *Effect of Ready Planned Self-Growth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25] S. E. Lee. (2009).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s' Self-Efficacy and Peer Attachment by Parental Bonding Relationship.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1(2), 481-500.
- [26] M. Y. Kim, J. S. Jung & C. E. Yang. (2020). Influence of Academic Stress, Career Identity and Self Efficacy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6), 1267-1284.
DOI : 10.222241/jlcci.2020.20.6.1267
- [27] K. S. Kang & Y. S. Ko. (2016). Effects of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1(2), 179-189.
DOI : 10.15715/kjhcom.2016.11.2.179
- [28] Y. H. Kim. (2009). Relationship of Self Efficacy, Self-Directedness and Practice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Educ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6(3), 307-315.
- [29] E. J. Shin. (2008). A Study Related to Self-Efficacy, Satisfaction with Practice and Fundamentals of Nursing Practicu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5(3), 380-386.
- [30] E. Y. Yeom. (2019). The Influence of Experience of Nurses' Incivility and Social Anxiety on Emotional Labor in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9(4), 293-302.
DOI : 10.5392/JKCA.2019.19.04.293
- [31] J. S. Kim. (2017). The Relationships among Incivility, Coping, Career Identity and Burnout in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2), 407-416.
- [32] J. G. Kim, J. H. Yoo & E. Y. Cheon. (2017).

Relationship among Incivility, Burnout, Coping and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experienced by Nursing College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 316-324.
DOI : 10.5762/KAIS.2017.18.1.316

- [33] H. M. Yang, Y. J. Lee & K. J. Lee. (2019). Effects by incivility experienced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f nursing student on career identify.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12), 637-648.
DOI : 10.35873/ajmahs.2019.9.12.057
- [34] J. W. Park & N. S. Ha. (2003). Nursing student's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2(1), 27-35.
- [35] S. H. Lee & E. J. Cha. (2017). Effects of Verbal Abuse, Sexual Violence, Depression, and Self-Esteem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Training.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4), 550-560.
DOI : 10.5392/JKCA.2017.17.04.550
- [36] Y. O. Yang & S. O. Lee. (2012). The 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on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2), 979-990.
DOI : 10.5392/JKCA.2017.17.04.550
- [37] H. S. Kim. (2007).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Career Education Program as Curriculum on Vocational Identity, Career Decision Levels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2), 35-46.
- [38] M. O. Chae. (2019). Self-Efficacy, Career Identity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7), 147-156.
DOI : 10.14400/JDC.2019.17.7.147
- [39] S. R. Lee. (2011). Nurse Image, Satisfaction of Major effect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Male Students in Nursing. A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 [40] Y. S. Moon & S. J. Han. (2011). Impact of Self-efficac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1), 72-79.
DOI : 10.5977/JKASNE.2011.17.1.072
- [41] S. S. Han, M. H. Kim & E. K. Yun. (2008).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1), 73-79.
DOI : 10.5977/JKASNE.2008.14.1.073

송 정 희(Jung-Hee Song)

[정회원]



- 1999년 2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학사)
- 2005년 2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08년 2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08년 2월 ~ 2011년 2월 : 김천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1년 3월 ~ 2015년 2월 : 전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
- E-Mail : sjh1994@ansan.ac.kr

김 혜 진(Hye-Jin Kim)

[정회원]



- 2001년 2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학사)
- 2005년 2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08년 8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여성건강, 실습교육, 산학교육
- E-Mail : jinjin051023@naver.com